



‘김광현 5선발’ 세인트루이스 톱 10 포함

2020년 MLB 선발 로테이션 강한 팀 선정
류현진 토론토는 순위 밖… LA다저스는 6위

김광현이 가세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진이 20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발 ‘톱10’에 들었다.

MLB닷컴은 19일 2020년 선발 로테이션이 강한 10개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0위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선발 진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광현이 5선발로 포함된 것이다.

MLB닷컴은 올해 세인트루이스가 잭 플래허티, 다코타 허드슨, 애덤 웨인라이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김광현 순으로 1~5선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발투수인 마이크 마이컬러스가 스프링캠프에서 오른쪽 골목근 통증으로 이탈한 빈자리를 김광현이 채운 셈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개막이 5월 중순 이후로 미뤄져 마이컬러스가 회복해 개막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MLB닷컴은 “마이컬러스를 선발 리스트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온 베테랑 투수 김광현이 스프링캠프가 중단되기 전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김광현은

5선발 자리에 넣은 이유를 설명했다. 류현진이 1선발로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톱10에 들지 못했다.

작년까지 류현진이 몸담았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6위에 올랐다.

1위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워싱턴 내셔널스다.

워싱턴은 맥스 셔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패트릭 코빈, 아니발 산체스, 조 로손으로 이어지는 막강 선발을 구축했다.

에이스 셔저가 옆구리 통증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개막이 연기된 것은 워싱턴 선발진에 호재로 작용했다.

2위는 뉴욕 메츠로, 제이컵 디그롬, 노아 신더가드, 마커스 스트로먼, 릭 포셀로, 스티븐 매츠가 선발진을 채우고 있다.

최저만의 소속팀인 탬파베이 레이스가 3위다. 탬파베이는 찰리 모턴,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그래스노, 라이언 아브로, 요니 치리노스로 로테이션을 돌린다.

신시내티 레즈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4·5위에 올랐고, 뉴욕 양키스는 7위다.

추신수가 뛰는 텍사스 레인저스(마이크 마이너, 랜스 린, 코리 클루버, 카일 김슨, 조던 라일스)가 8위를 차지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9위로 선정됐다.

이 순위는 조정 평균자책점(ERA+)을 비중 있게 고려해서 정했다. ERA+는 리그 평균자책점과 구장 특성, 상대 팀 등을 적용해 만든 투수 지표다.



리그를 위한 힘찬 투구 두산베어스 알칸타라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KLPGA, 4월 국내 개막전 등 대회 취소

코로나19에 4개 대회 취소
다음 일정은 4월 30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월로 예정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대회를 취소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취소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4월 9일부터 제주도에서 2020시즌 국내 개막전으로 열리려던 대회였다. KLPGA 투어 2020시즌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으로 막을 올렸고, 이후 3월 대만에서 대만여자오픈을 개최한 뒤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만여자오픈이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데 이어 국내 개막전으로 준비하던 롯데렌터카 여

자오픈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또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이어 열릴 예정이던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역시 이달 초 취소가 확정됐고, 4월의 세 번째 대회로 계획됐던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역시 코로나19 탓에 시즌 일정표에서 빠지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시즌 총 4개 대회가 취소된 KLPGA 투어의 다음 일정은 4월 30일 개막하는 크리스 F&C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이다.

KLPGA 투어는 “시시각각 변하는 법적·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 앞으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세계보건기구 등 관련 기관의 정보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경마공원 임시휴장
4월 9일까지 연장기로

제주경마공원 임시 휴장 기간이 오는 4월 9일까지로 연장된다.

한국마사회는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 3개 경마장과 전체 사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장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달 23일 첫 임시 휴장에 들어간 마사회는 이후 두 차례 더 일정을 조정해 이달 26일까지 휴장일을 연장

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자 또다시 휴장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마사회는 지난 14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에 예정됐던 경마가 취소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승마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점 업체 임대료 감면, 계약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마 재개에 대비해 안전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전쟁으로 멈추고… 올해는 코로나19?

도쿄올림픽의 굴곡진 역사

1940년 하계올림픽은 ‘사라진(missing)’ 올림픽’으로 통한다.

일본 도쿄는 1940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됐지만,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의 여파로 개최권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반납했다.

IOC는 핀란드 헬싱키를 대체 도시로 선정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 터져 1940년 올림픽은 아예 열리지 못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결림돌을 만난 도쿄는 또다시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역대 하계올림픽 중 전쟁 때문에 1916년(1차 세계대전), 1940년과 1944년(이상 2차 세계대전) 대회만 열리지 않았다. >>사진

1940년엔 아시아 침략 전쟁을 유발해 스스로 올림픽 개최를 건어켰다면, 이번엔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18일 “저주받은 올림픽”이라며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생겼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이런 도쿄올림픽의 굴곡진 역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AFP통신의 보도를 보면, 도쿄는 1940년과 2020년 하계올림픽을 동일한 목적으로 유치했다.

일본 도쿄는 1923년 간토대지진에

서 회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자 1940년 올림픽 유치에 나섰다.일본 개국 공신인 진무천황의 즉위 26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번에도 2011년 도호쿠대지진에서 완벽하게 나라를 재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해 개최권을 따냈다.

3월 26일 예정된 일본 내 평화 봉송을 도호쿠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에서 시작하는 것도 ‘재건’을 상징한다.

그러나 복미 대륙과 유럽에서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도쿄의 2020 꿈을 앗아가고 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막까지 4개월이 남았기에 예정대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7월 24일 도쿄 신주쿠에 세워진 신국립경기장 성화대에 성화가 점화되긴 어렵다는 회의론이 갈수록 힘을 얻어간다.

코로나19가 언제 잠잠해질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다. 이제 막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한 유럽과 미국은 언제 정상 생활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다.

국제 사정에 밝은 체육계 한 관계자는 “안전을 확실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올림픽도 내년으로 1년 늦춰 치러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역대 하계올림픽 취소 사례



연합뉴스

MG 새마을금고중앙회 서귀포시협의회 2020년도 이사장 선거

당선과 취임을 축하합니다



MG새마을금고

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장 관 (3선)

대포새마을금고



이사장 고 상 종 (3선)

서홍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경 공 (3선)

제주남원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정 근 부 (2선)

강정새마을금고



이사장 윤 호 성 (2선)

법환새마을금고



이사장 강 종 필 (초선)

서귀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송 보 언 (초선)

태홍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성 범 (초선)

의귀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용 대 (초선)

신례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문 현 (초선)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초선)

남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경 철 (초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김 장 관

서호새마을금고 이사장 현 문 법
호근새마을금고 이사장 고 학 인

서귀포새마을금고 이사장 윤 재 순
예래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임 수 진

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강 의 근
※ 합동취임식을 생각하고 본 광고로 대체함

제2공항 촉구

『국토부가 결정한 대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은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과 교통분산,
관광, 건설경기활성화,
고용증대, 침체된 제주경제
활력을 위해서 -
국토부가 결정한 대로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서귀포시협의회 1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일동